단 신

직업과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신 동 천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심장질환 (Coronary Heart Disease)은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보다는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산업화된 나라에서 더 흔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구미국가들에서는 흔한 이 질환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문제가 되리라 본다.

관상동맥심장질환에 대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위험요인들로는 연령, 흡연, 혈중콜레스테롤치, 혈압, 당뇨병, 운동량부족 등이 있으며 영양상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은 개인의 사회경제상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의 차이에 따라 사회경제수준이 다를 것이며 이는 관상동맥심장질환의 여러 위험요소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결국 직업이 이 질환의 발생위험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에대한 기술적연구(descriptive study)의 결과로는 사회경제수준이 높은 직업에서 관상동맥심장질환 위험도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적연구에서는 여러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s)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조사대상자의 흡연여부나 운동량 등의 중요한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때문에 신빙성있는 결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Burling 등의 저자들은 Floride에 거주하는 30～70세의 주민을 대상으로 관상동맥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을 조사하고 직업이외에는 다른 위험요인이 유사한 사람들을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하여 직업의 차이에 의한 관상동맥심장질환의 위험도를 산출하여 미국의학협회지에 발표하였다. 직업의 구분은 'Edwards' US Census grouping of occupations'를 이용하여 여섯군으로 하였는데 1) 전문직, 2) 사업가, 관리직, 공무원(농장소유주와 도소매상 소유주 포함), 3) 사무직, 4) 기술직, 5) 숙련직, 6) 비숙련 노동자 이며 이중, 1) 2) 3)은 '사무직근로자(white collar)로 4) 5) 6)은 '노동직근로자(blue collar)로 크게 나누어 두 군간의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수는 568개의 짝(pair)이었으며 사무직과 근로직의 일반비교위험도(crude relative risk)는 0.80이었고 95% 신리구간은 0.62～1.04이었다. 이들을 관상동맥심장질환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비교위험도는 더 낮아져 0.70이었으며 95% 신리구간은 0.51～0.96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사무직근로자가 노동직근로자보다 심장질환 위험도가 오히려 낮다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는 일치가 되지만 관상동맥심장질환이 사회경제적상태가 비교적 높은 사무직근로자에서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견해와는 일치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연구수행중 개재될 수 있는 편견(bias) 즉, 면담이 잘못 되거나 조사대상선정이 잘못될 가능성을 제시하긴 하였으나 이 연구의 결과를 어느정도 받아들이면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직업과 아울러 개인의 영양 및 식이습관, 의료기관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 하는 의료행태, 정신적 스트레스등 이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또 다른 혼란요인을 배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관상동맥심장질환은 사회경제 수준의 향상에 따라 나타나는 비중이 큰 질환으로 직업과 관련하여 건강관리의 대상이 되며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질환이다.